

시조의 텍스트성(textuality) 연구

임 중 찬*

〈국문초록〉

시조를 文으로 짜여진 text라고 보고, 그 짜임 (textuality)을 1) 각 장의 수사적 표현 2) 각 장끼리의 연결성 3) 각 장의 통사적 짜임의 측면에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살펴보았다.

고시조에 있어서 1)은 논리 정연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논리를 방해할 수 있는 수식어를 극도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았다. 2)는 각 장끼리의 응집성 혹은 응결성을 확보하여 확실한 연결을 이루고 있음을 알았다. 3)은 통사적으로 안정된 짜임을 갖고 있어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았다.

현대시조에 있어서 1)은 수식어를 남용하여 정연한 논리로서의 시조가 되지 못 할 뿐더러 3장 구성까지도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2)는 각 장끼리의 연결성이 애매하여 장과 장끼리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3)은 3장 6구를 이루는 통사적 짜임을 몰각하여 시조 형식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현대시조의 경향은 현대시조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 연결성, 응결성, 응집성, 정연한 논리

* 부산대

I. 서론

시조를 하나의 텍스트라고 한다면¹⁾ 인간의 의도적 기호체계인 시조는 어떠한 언어적 장치를 통하여 시조라는 형태를 이루어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문자, 음운, 형태, 통사, 어휘, 수사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1) 각 장은 수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2) 각 장은 서로 어떻게 연결성(응집성과 응결성)을 가지는가, 3) 시조에 있어서의 각 章은 통사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흔히 현대시조는 고시조를 거역하는 데서 출발 의의를 찾는다. 그러나 이 때의 거역은 시조의 근본 속성까지를 거역하자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 논문에서는 고시조가 모범을 보였던 시조로서의 속성의 일부라 할 수 있는 1), 2), 3)이 현대시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현대시조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고시조의 텍스트성

시조는 하나의 완결된 형식구조를 요구하는 정형시라고 할 때 시조

1) 텍스트란 말은 애초 라틴어 *textus*에 기원하지만 직물/직조의 개념을 능가하여 언어학에서는 문자로 적혀진 길고 짧은 글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호학자들은 텍스트의 개념을 넓게 잡아 문학 작품, 뉴스 보도나 신문기사와 같은 저널리즘, 대중문화산물, 여인들의 화장과 옷차림 등의 유행, 미술 작품, 민담과 전설 등의 민속문화 산물, 실내장식이나 도시계획 등의 문화적 가공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조로 만들어진 文의 짜임을 시조의 텍스트라고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文의 형식적 속성을 일러 시조의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속에는 시조답게 만드는 장치가 내재하게 되고 이 내재된 장치가 형식미를 유발하게 되어 정형시로서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고시조를 읽어 보면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 장은 수식어를 극도로 배제하여 논리전개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고대 수사학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배치(disposition)의 개념이었다. 이것은 사고의 배치를 의미하는데 사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²⁾ 고시조는 시의 형식을 취하지만 언어로서 논리 정연한 문장이었다. 사고의 배치가 안정되고 전달내용이 정제되어서 의미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렬함에 있어 이것을 방해하는 수식어는 불필요함을 고대 수사학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여 왔던 것인데 고시조에서도 이 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1) 이 몸이 죽어죽어 一百番 고쳐죽어
白骨이 塵土되어 녀시라도 잊고 업고
님 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二數大葉 鄭夢周(瓶歌 52)

- 2)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리
萬壽山 드렁츄이 얼거진들 귀 엇더흐리
우리도 이긋치 얼거저 百年까지 누리이라

三數大葉 太宗御製(瓶歌 797)

- 3) 白雪이 즈즈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는 어니 곳익 꿩엇는고
夕陽의 호을노 서서 갈 곳 몰나 흐노라

二數大葉 李穡(瓶歌 51)

2) 고영근, 텍스트 이론(아르케, 1999), 30쪽.

4)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지
一枝春心を 子規야 알나마는
多情도 病人양하여 줌 못 일워 호노라

李兆年(瓶歌 50)

왜 이렇게 시조는 논리정연한 문장으로 이룩되었는가. 이것은 성리학
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시조가 고려말에 발생하였다는 설은 정설로
굳어진 듯하고, 현전하는 작품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³⁾ 그리고 시조
를 발생시킨 신흥사대부들은 대부분 성리학을 신봉하였다. 고려 말 신흥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국가 경영의 근간으로 삼고자 한 것은 사원의
폐쇄와 승려의 비행에 대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불교로 인하여 滅倫과
害國性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회윤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禮治와 德治에
의한 왕도정치로서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과 함께 대의 명분 의
리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의 규범을 실현시킴으로써 안정적 국가기반 확
립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⁴⁾ 그들은 훗날 사화나 당쟁에서 볼 수 있
었듯이 대단한 열성으로 목숨을 건 정치적 투쟁을 벌였고, 그들이 치른
희생만큼 실제적 보상이 거의 없었으면서도 명예를 위한 투쟁이면서
자기 삶의 역사화에 치중하였던 것이다.⁵⁾

불교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들은 불교가
증명되지 않는 來世觀으로 현실생활을 규제하려는 것도 불만이었지만
개념을 극단화시키지 않음으로써 포괄적 사유세계를 획득한다고는 하
나 이 또한 명쾌한 논거, 정확한 근거 확보가 안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3) 발생기의 작품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훈민정음 창제를 기다려 문자화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시조 자체가 구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졸저, 古時調의 本質, 國學資料院, 1993,
37~82쪽 참조)

4) 조명기 외: 한국 사상의 심층 연구(우석, 1986), 191쪽.

5)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 문화(사계절, 1999), 148쪽.

현실의 삶을 중시하고 삶에 대한 가치를 大義로 삼아 禮와 德으로서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므로 성리학적 진실을 명증시키기 위해 적합한 논리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성리학을 신봉한 정몽주는 1)로서 자기 신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 이후 왕이 되어 많은 불교의 업적을 남긴 이방원은 삶의 극단화를 경계하는 2)를 남긴 것이다. 1)이 不事二君의 성리학적 논거라면 2)는 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불교적 논거다.

시는 언어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에 대한 언술은 상세하고 세밀한 표현은 극도로 제약하면서 상징이나 은유의 수법으로 意義를 강화시킨다. 정서 전달을 위한 정보성의 강화를 위해 때로는 비예측적 언어를 동원하기도 하고 포괄적 언어를 활용하기도 하면서 시적 대상의 단순한 의미 부여를 초월한다.

시이긴 해도 정형시인 시조, 특히 고시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대시의 언어와는 상당히 다름을 앞서 작품들에서 확인하였다. 고시조의 언어가 1)처럼 직선적 논리표현으로 직진하거나 2), 3), 4)처럼 우회적이긴 해도 의미가 복합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1), 2), 3), 4)가 아니라 해도 해석이 모호한 경우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불투명한 고시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대부들은 左 아니면 右였지 左도 右도 아닌 중도의 길을 스스로 막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현상과 본질을 하나로 인식하였고 자기 신념은 늘 행동으로 外化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글 속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는 봉쇄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고시조는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餘技였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 논의의 완곡한 外道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작가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솔직한 문학이었다.

둘째, 고시조는 의미와 의미의 연결을 확실히 하여 텍스트로서 단단

히 접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 2), 3), 4)에는 장과 장 사이에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몸이 죽어죽어 一ㅁㅁ 고쳐죽어 (그래서) 白骨이 塵土되어 녀시라도 있고 업고 (그러나) 님 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설 줄이 이시라.
- ②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리 (예를 들면) 萬壽山 드렁츄이 얼거진들 귀 엇더하리 (그러니) 우리도 이곳저 얼거저 百年까지 누리이라.
- ③ 白雪이 즈즈진 골에 구름이 머호레라 (그러니) 반가온 梅花는 어니 곳의 휘 엇는고 (그래서) 夕陽의 호을노 서서 갈 곳 몰나 호노라.⁶⁾
- ④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지 (아마도) 一枝春心을 子規야 알나마는 (그러나) 多情도 病人양호여 줌 못 일워 호노라

접속어의 생략은 시조의 형식 때문에 강제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서나 특히 정형시에 있어서는 접속어 생략(asyndeton)은 언어 절약의 수단이면서 절제미(temporance)를 위해서 과감히 차용되는 수법이다. 어찌했던 앞 장의 정보가 뒷 장의 정보로 확실히 연결시키는 연결장치가 ①, ②, ③, ④에는 존재하고 있다.

문법적 요소를 동원하여 텍스트 표층 간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장치를 응결성(cohesion)이라 하고, 텍스트의 개념적(의미적) 연결성을 통해 앞과 뒤를 연결하는 것을 응집성(coherence)이라고 할 때⁷⁾ ①, ②, ③은 접속어로서의 응결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한다면 ④는 응결성도 있지만 응집성이 등장하고 있는 경우다. ④는 초장 다음에 ‘子規가 울고 있다’가 생략되었다. 이 정보를 ‘子規야 알라마는’(자규가 알고 울까마는)이란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의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응집성

6) 이 시조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백설이 자욱하고 또 구름마저 거칠어서 눈이 내릴 것 같다. 그러니 이런 악천후 속에서 반가운 매화가 어느 골엔들 피어 있겠는가. 그래서 때마저 석양이고 기후조차 악천후이고 거기다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모르겠다.”

7) 고영근, 앞의 책, 137~141쪽.

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위에 예를 든 작품들 뿐 아니라 고시조는 어느 것이나 장과 장 사이에는 연결성(응결성, 응집성)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어 의미의 맥락이 정돈되고 마무리 된다.

셋째, 고시조는 각 章이 통사적으로 짜여 있어서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형시는 시행이 통사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漢詩의 七言詩의 경우는 의미맥락이 4와 3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시조는 다음과 같이 짜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 ㄱ) 주어구 + 서술어구
- ㄴ) 전절 + 후절
- ㄷ) 위치어 + 文
- ㄹ) 목적어구 + 서술어구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시조를 일러 3장 6구라고 한다. 이것은 시조가 정형시임을 입증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조는 발생기적 시조에서부터 일관되게 시조로서의 텍스트 속성의 일부인 첫째, 둘째, 셋째 경우를 확보해가면서 계속 창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Ⅲ. 현대시조의 텍스트성

앞서 고시조에서는 각 장은 문장 성분상 이분되고 이분되는 이유 때

8) 이 점에 대해서는 졸고 '現代時調 作品을 통해 본 創作 上の 문제점 연구' (時調學論叢 12輯 1996 時調學會) 참조.

문에 고시조는 3장 6구형식을 가진 정형시라 한다고 하였다. 또 이것 때문에 詩文이 정연하게 안정되고 시적논의가 분명하게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장은 연결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3장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직선적 표현으로 나아가거나 우회적 표현이라 해도 의미의 복합성을 경계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5) 메마다 눈이 녹고 들엔 벌서 새 풀나고
石壁에 자는 폭포 다시 숨을 돌리나니
우리의 바라는 시절도 머지 않아 오려나

봄비에 젖은 山을 푸름 날로 깨어오고
안개에 흐린 바다 아침놀에 밝아오네
이제야 우리의 시름도 쓸릴듯도 하구나

(1933. 東亞日報)

- 卓相銖 '봄' 전문⁹⁾

5)는 3장 6구를 지키면서 장과 장의 연결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표현에 있어서도 고시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제, 소재나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태도의 측면에서 고시조와 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시조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고시조가 보여줬던 시조로서의 텍스트 속성을 간직하면서 시조를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시조 작품들은 시조의 속성까지도 표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수식어의 남용으로 인하여 의미가 정제되지 않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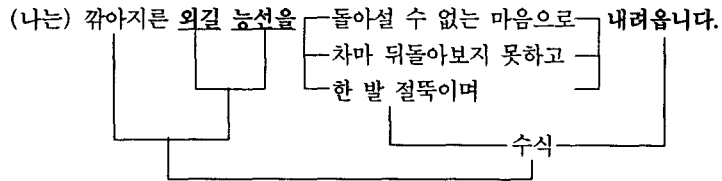
- 6) 깎아지른 외길 능선을
돌아설 수 없는 마음으로

9) 李秉岐·李泰極 編, 現代時調選叢(새글사, 1959), 279쪽.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한 발 절뚝이며 내려옵니다
당신과 하나된 순간
저버릴 수 없음입니다

- 김영재 '산을 내려오면서' 일부¹⁰⁾

잡다한 수식어가 등장하여 소란하지만 의미는 단순하다. 이리다 보니 고시조가 보여줬던 3장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장 중장의 수식관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길능선을 내려옵니다'가 주의미이고 나머지는 이 말을 꾸미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고시조는 애초 이렇게 꾸미는 말의 동원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할 말만 함축하였던 것인데, 여기서는 수식어를 남용하다 보니 의미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초장 중장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다음 작품은 6)보다 더 수식어가 복잡다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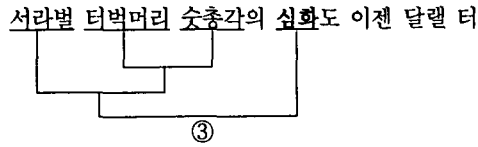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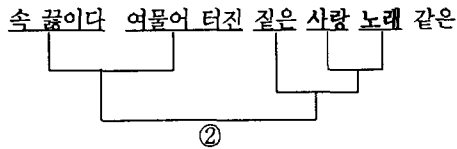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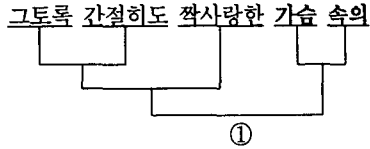
7) 그토록 간절히도 짝사랑한 가슴 속의
속 끓이다 여물어 터진 길은 사랑 노래 같은
서라벌 터벅머리 숫총각의 심화도 이젠 달랠 터.

- 김세환 '단비' 일부¹¹⁾

10) 2002 열린시조(가을), 149쪽.

11) 시조 2002, 47쪽.

7)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볼 때 7)은 '가슴 속의 사랑 노래 같은 심화도 이젠 달랠 터'가 주의미인데 말을 많이 하였지만 꾸미는 말만 너절하여 간명하면서도 시적 논의가 적확했던 고시조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 8) 아침 잠 털어내려 올려다본 하늘은 ①
 욕망을 덧칠하던 회색구름 걷어내고 ②
 투명한 가을 하늘을 내 안에 들이민다. ③

- 김선희 '하늘의 선물' 일부¹²⁾

※ 번호는 필자가 붙였음. 활자 크기도 달리하였음

12) 세계시조 2003 가을, 107쪽.

굳더더기 말을 빼버리면 ‘하늘은 회색구름 걷어내고 가을 하늘을 내 안에 들이민다.’이다. 이 간단한 의미가 수사의 덧칠을 받아 시조인양 꾸며져 있지만 3장으로서의 논리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과 장을 연결하는 연결장치가 모호하여 3장이 유기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9) 왼쪽으로 치우친, 그것은 판단이었다.]①

은뎡으로 맞받아쳤을
비바람
여치의 무게

} ②

별똥별
긋고 간 금 따라
낭미초
휘어 있다.

} ③

- 홍성란 ‘가늘고 긴 기울기’ 전문¹³⁾

※ 기호, 번호는 필자가 붙였음

①은 초장 ②는 중장 ③은 종장이라고 할 때 ①과 ②사이 ②와 ③사이에는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으로 의미를 기워넣어야 하는데 무슨 의미를 채워넣어야 의미의 혈관이 통할지가 의심스러운 작품이다. 이렇게 각 장이 파편화되어버리면 애초 시조가 보여주었던 단단하고 구체적인 의미형태를 크게 벗어나 버리게 된다.

10) 지상에서 사라져간 새떼의 젖은 맨발 ①
얼음꽃 총총한 북극으로 길을 내고 ②

13) 시조21 2004 상반기 호, 36쪽.

언어알 어미 생각에 치달리는 푸른 허공 ③

- 백이운 '허공' 전문¹⁴⁾

①은 주어부 ②는 술어부가 되어 하나의 文이 되고 ③은 새로 만들어지는 文으로 '푸른 허공은 언어알 어미생각에 치달린다'가 되어 형식 상으로는 앞 文과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지가 아리송해지게 된다. ①②와 ③ 사이에는 연결하기 어려운 의미를 폭력적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이 때의 연결성은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

11) 양평 지나 가산 짝의 남한강 가 돌밭 ①

해오라기 한 마리 긴 목 추스르고 섰다. ②

강물은 저만한 풍경 위해 천년을 뒤척였으리. ③

- 박시교 '전봉건 추억' 일부¹⁵⁾

①은 ②의 배경역할을 하므로 응집성이 드러났다고 하겠다. ①②와 ③은 응결장치가 남한강(강물)이면서 지시어 '저만한'은 ①②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러나 ①②를 지시하는 '저만한 풍경', '천년을 뒤척였으리'가 내포하는 의미가 전봉건 시인과의 유대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¹⁶⁾

12) 대저, 시인이란 ①

바람쭉 여겨지는 ②

마냥 떠돌이 ③

이 낭마의 세월 ④

14) 시조 2004 상반기 호, 65쪽.

15) 열린시조 2003 가을, 99쪽.

16) 수석 취미를 가진 전 시인을 나타내려고 의도했다면 돌을 쥌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 그렇다 ⑤
- 그 젖은 걸레 ⑥
- 빈 그릇 ⑦
- 닦고 있는 ⑧

- 김종윤 '젖은 걸레' 전문¹⁷⁾

※ 번호는 필자가 붙였음

의미상으로는 ㉠ 시인은 바람쫓 여겨지는 떠돌이 ㉡이 낭만의 세월 ㉢ (시인은) 그 젖은 걸레로 빈 그릇을 닦고 있다이지만 ㉣④의 의미적 연관성이 적을뿐더러 작품 전체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시가 은유를 채택하는 것은 우선 의미와 정서를 확대하기 위함이고 다음으로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새로운 의미부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은유가 성공적이 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였을 때인 것이지 혼돈을 초래하는 은유같지도 않은 은유는 시를 난해하게 하고 의미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실패다.

서정적 발화는 전통시가의 방식대로 통사적, 구조적, 의미적으로 연결성을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다. 조립서정시(Montagelyrik)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비논리적 비통사적 결합이 시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호한 발화방식을 이용한 난해시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조의 경우에는 자유시의 이러한 방만함에 차이를 두고 단아한 형식, 절제된 발화에 의해 시로서의 완결성¹⁸⁾을 확보할 때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전체 의미는 정리되어 있지만 3장으로 의미 분할되지 않는 경우이다.

17) 시조세계 2003 가을, 70쪽.

18) 줄고, 現代時調의 完結性 研究(時調學論叢 제18집), 참조.

13) 이게 왜 일인가
 낮설은
 풀잎의
 얼굴이 되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니
 단명의
 아픔으로 된
 기막힌 희열 희열

- 최언진 '꽃꽂이' 전문¹⁹⁾

13)을 의미단위로 갈라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게 왜일인가①

 낮설은②
 풀잎의③
 얼굴이 되어④
 더욱⑤
 아름다울 수 있다니⑥

 단명의⑦
 아픔으로 된⑧
 기막힌 희열 희열⑨

의미단위는 크게 ①, ②~⑥, ⑦~⑨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니 ①이 초장 구실이어야 하고 ②~⑥이 중장 ⑦~⑨가 종장 구실이어야 한다. 과연 ①을 초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②~⑥과 ⑦~⑨의 숨은 주어 '꽃꽂이' 때문에 ②~⑥과 ⑦~⑨가 의미상 연결이 되지만 응집성이 약하여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독자의 무리한 상상력이 필요 이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억지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19) 시조 2002, 305쪽.

셋째, 각 장이 통사적으로 짜여 있지 않아서 3장 6구 형식에서 벗어난 경우다. 이 경우는 앞에서도 수식어를 남용하다보니 3장 구성을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고 다른 논문²⁰⁾에서도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시조의 텍스트성을 바람직하게 발휘한 현대시조의 작품을 살펴보자.

14) 차마 꽃은 못필레 } ①
 그 아프디 아픈 破裂 }

銀杏처럼 바라만 보며 } ②
 서로 앓긴 더 못할레 }

차라리 혼자만의 凝血로 } ③
 열매하여 견딜레
(1966.12.31 약진경복)

- 이호우 '無花果' 전문²¹⁾

※ 번호는 필자가 붙였음

①과 ②사이에는 '그렇다고' ②와 ③ 사이에는 '그래서'를 생략하였다. 詩意가 정리되면서 논의가 정연하고 수식어는 극도로 삼간 고시조의 전통을 살리면서 장과 장 사이의 연결성이 확실히 드러나있다.

15) 풍경소리 떠나가면 절도 멀리 떠나가고
 호르는 물소리에 산은 감감 묻혔는데
 적막이 혼자 등글어 달을 밀어 올립니다.

- 정완영 '망월사의 밤' 전문²²⁾

20) 줄고, '시조의 三章 구조 연구'(時調學論叢 제14집), '현대 시조의 정형성 연구'(時調學論叢 제13집) 참조.

21) 민병도, 문무학 편, 이호우 시조선집(도서출판 그루, 1992), 102쪽.

22) 시조세계 12호 2003 가을, 29쪽.

이 작품 또한 시조의 형식미가 돋보이면서 장과 장끼리의 유기적 결합이 잘 드러났고 정연한 논의로서 정형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시조를 하나의 텍스트라고 할 때 1) 각 장의 수사적 표현 2) 각 장끼리의 연결성 3) 각 장의 통사적 짜임의 측면에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살펴보았다.

고시조에 있어서 1)은 논리정연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논리를 방해할 수 있는 수식어를 극도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았다. 2)는 각 장끼리의 응집성 혹은 응결성을 확보하여 확실한 연결을 이루고 있음을 알았다. 3)은 통사적으로 안정된 짜임을 갖고 있어서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현대시조에 있어서 1)은 수식어를 남용하여 정연한 논리로서의 시조가 되지 못할뿐더러 3장 구성까지도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2)는 각 장끼리의 연결성이 애매하여 장과 장끼리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3)은 3장 6구를 이루는 통사적 짜임을 몰각하여 시조 형식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대시조 중에는 고시조가 모범 보였던 정제된 형식미(텍스트성)를 허물어버린 작품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현대시조가 고시조의 구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데만 집착하여 고수해야 하는 형식미를 포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조의 존립근거는 희미해지고 시조 아닌 것을 시조라고 우기는 경우가 되고 만다는 점을 시조시인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이병기·이태극 편, 현대시조선총, 새글사, 1959.

2002 열린시조(가을)

시조 2002

세계시조 2003 가을

시조 21 2004 상반기호

열린시조 2003

시조세계 2003 가을

민병도, 문무학 편 이호우 시조선집, 도서출판 그루, 1992.

2. 참고문헌

고영근, 텍스트 이론, 아르케, 1999.

조명기 외, 한국 사상의 심층 연구, 우석, 1986.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1999.

申用浩 편,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1.

임종찬, 現代時調論, 국학자료원, 1992.

임종찬, 古時調의 本質, 국학자료원,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Textuality of Sijo Poetry

Im Jong-Chan

If Sijo poetry is referred to a text which is composed of sentences, its textuality can be explored in terms of 1) the figurative words used in each line, 2) the logical sequence between lines, 3) the syntactic composition of each line.

With the ancient Sijo poem, 1) it is composed of logical sentences

as a result of extremely restraining from using figurative words that could prevent the reader from grasping the logical sequence within the work: 2) there is a clear cohesion between lines that can make each work perfectly coherent: 3) each line has a balanced syntactic structure, so the entire structure of a Sijo poem is '6 phrases in lines'.

With the modern Sijo poem, 1) it abounds in figurative words, which prevent the work from having a logical sequence, and sometimes even from having three lines: 2) there is a loose cohesion between lines which can't make each work coherent: 3) it sometimes destroys the syntactic structure, '6 phrases in 3 lines', unique to traditional Sijo poetry.

I think that this trend of modern Sijo poetry can cause haphazard the existence of modern Sijo poetry.

Keywords : Sijo, Textuality, poetry figurative words, sequence, syntactic composition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